

분과 4

온라인 분과 I : 통번역

사회 : 이진경(건양사이버대학교)

번역 자동평가모델의 구축 및 응용에 관한 연구 -자동평가지표의 활용을 중심으로-

리번켈빈(대구대학교)

1. 서론

자동평가지표(Automatic Evaluation Metrics, AEM)를 통한 기계번역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자동평가지표는 단일 지표가 아닌, 파이썬(Python) 플랫폼을 통해 활용 가능한 20여 가지 이상의 지표를 포함한다. 각 지표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기계번역의 출력 결과를 평가하는데, 대표적으로는 BLEU, TER, BERTScore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기계번역 결과와 참조 번역 간의 대조 수치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번역학 관련 기존 논의는 단일 자동평가지표의 지표만 활용하여 기계번역 결과를 분석한 논의에 치우쳐 있다. 여러 자동평가지표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모델을 제시하거나, 자동평가지표가 인간의 번역 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자동평가지표를 선별하고 배열하여 자동평가지표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신속하고 객관적인 번역 또는 출력의 평가 분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학습 맥락에서 이러한 자동평가지표 모델이 번역 학습자의 번역 결과를 평가하는 데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다양한 자동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자동 평가지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번역 또는 산출 결과에 대한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번역 또는 산출 결과 평가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자동평가모델은 인간 번역 평가 또는 인간 번역 평가 이전에 평가자에게 자동 평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활용된다면, 번역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번역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번역의 자동평가지표와 자동평가모델

2.1. 번역 자동평가지표의 개괄

자동평가지표란 기계번역의 출력(output)¹⁾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화된 평가지표를 의미한다. 자동평가지표의 주요 장점은 평가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이라는 점과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평가지표는 기계번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으로 말미암아 기계번역 시

1) 출력(output)은 기계번역(MT) 또는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생성한 번역 결과를 가리키며, 이는 인간 번역자가 수동으로 번역한 결과와는 다르다.

시스템의 개발과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먼저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번역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리고 자동평가지표는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평가도 자동화된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대량의 번역 작업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평가지표는 평가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 동일한 번역 결과에 대해 자동평가지표를 사용하면 항상 동일한 평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평가자 간의 편차가 줄어들고 결과의 일관성을 높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일관성은 번역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동평가지표는 인간 평가와 비교하였을 때 번역의 품질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번역의 뉘앙스나 문화적 맥락 등의 복잡한 측면은 자동평가지표로 충분히 평가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평가지표는 언어의 측면에서 형태, 통사, 의미의 구조 등의 번역 품질 평가는 잘 반영되지만, 화용적 표현의 번역 품질 평가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평가지표는 번역의 기본적인 정확성과 유창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평가지표는 여러 종류의 지표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BLEU²⁾, TER³⁾, METEOR⁴⁾, ROUGE⁵⁾, BERTScore⁶⁾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각각의 특성과 장점이 있어 기계번역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지표들을 조합하거나 상황에 맞는 지표들을 선택하면 상호보완하면서 기계번역의 품질을 더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2.2. 번역 자동평가지표의 활용 양상

번역 자동평가지표는 기계번역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다양한 번역 상황에서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번역사의 사후 편집(post-editing) 작업의 필요성을 예측하는 등 번역 평가의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된다.

대표적인 자동평가지표 중 하나인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는 n-gram 정밀도를 기반으로 기계번역 결과물과 참조 번역문 사이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BLEU는 빠르고 효율적인 평가를 제공하지만, 문맥이나 의미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백설(2022), 최지수(2023), 원몽(2024)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BLEU 지표를 중심으로 기계번역의 품질, 수정, 적용 등에 대해 탐구하였다.

다른 AEM 지표인 TER(Translation Edit Rate)은 번역된 문장과 원본 문장 간의 차이를 측정하여 번역의 정확성과 유창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TER는 다양한 번역 스타일과 표현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데, 임형재·리번켈빈(2024)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TER 지표를 사용하여 대화형 AI 기계번역의 품질을 평가하였다.

반면, METEOR(Metric for Evaluation of Translation with Explicit Ordering)는 기계번역 결과물과 참조 번역문 간

2) BLEU(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 기계번역 결과물과 참조 번역문 사이의 n-gram 정밀도를 측정하는 자동평가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기계번역의 출력 결과물이 참조 번역문과 유사함을 나타낸다.

3) TER(Translation Edit Rate): 기계번역의 '가설'/출력 결과물(hypothesis)과 참조 번역문(reference) 사이의 편집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정이 필요한 최소 토큰 수를 나타낸다. 낮은 TER 점수는 출력문 품질이 높고, 수정이 적게 필요함을 의미한다.

4) METEOR(Metric for Evaluation of Translation with Explicit Ordering): 기계번역 결과물과 참조 번역문 간의 단어 정렬과 일치도를 고려한 평가지표로, BLEU보다 더 유연하고 정밀한 평가를 제공한다.

5) ROUGE(Recall-Oriented Understudy for Gisting Evaluation): 요약문 평가에 주로 사용되지만, 기계번역 평가에도 활용되는 지표로, 번역된 문장과 참조 번역 간의 n-gram 일치도와 longest common subsequence 등을 측정하여 번역의 유사성을 평가한다.

6) BERTScore: 사전 학습된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 모델을 활용하여 번역 결과와 참조 번역 간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각 단어의 임베딩을 비교하여 의미적 유사성을 측정한다.

의 단어 정렬과 일치도를 고려한 평가지표인데, 다른 지표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유연하고 정밀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기계번역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번역 교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화형 AI를 활용한 번역 교육에서는 프롬프트의 중요성과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령, 임형재·리벤 켈빈(2024)은 대화형 AI를 활용하여 프롬프트 설계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번역 교육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3. 번역 자동평가모델 구축의 가능성과 원리

자동평가지표는 각각의 지표가 고유한 평가 항목과 원리를 가지고 있어 특정한 번역 결과물이나 출력문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단일 지표로 평가할 경우 그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결과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표를 조합하여 복합적인 평가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다양한 자동평가지표의 평가 항목과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평가모델 개발자는 평가 목적에 따라 적합한 자동평가지표를 선택하고, 이를 결합하여 평가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모델 구축은 파이썬(Python) 플랫폼을 통해 각 지표를 조합하여 하나의 통합 평가모델로 만드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 BLEU, TER, BERTScore 등 서로 다른 지표를 조합하여 복합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델이 구성된 각 지표의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각 지표의 종합 평가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이때 가중치의 설정은 평가모델의 목적과 각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가 목적이 번역의 유창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BERTScore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정확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BLEU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식으로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 모델은 번역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번역 자동평가모델 구축의 원리는 다양한 지표의 장점을 조합하여 번역의 품질을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 평가모델을 통해 다양한 지표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번역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기계번역 시스템의 개발과 평가, 그리고 번역 학습자의 성과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번역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번역의 자동평가모델 구축은 다양한 지표를 조합하여 번역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번역 시스템 및 번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동평가모델의 구축

3.1. 자동평가지표의 선정과 가중치 설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평가지표는 번역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번역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자동평가지표는 크게 형태(어휘), 통사(문장), 의미, 그리고 화용의 네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평가하는 지표로 나눌 수 있다. 각 분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자동평가지표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분류에 따른 대표적인 자동평가지표

평가지표 분류	평가지표	설명
형태(어휘) 평가	BLEU	n-gram 기반의 정밀도를 측정하여 어휘 및 형태적 정확성을 평가한다.
	METEOR	단어 정렬과 일치도를 고려하여 유연하고 정밀한 평가를 제공한다.
	ROUGE	요약문 평가에 주로 사용되며, 번역의 유사성을 평가한다.
통사(문장) 평가	TER	편집 거리를 측정하여 통사적 유창성이나 어순 정렬 등을 평가한다.
	NIST	각 n-gram의 정보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며 통사적 복잡성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GLEU	BLEU와 TER의 장점을 결합하여 정확성과 유창성을 동시에 평가한다.
의미(문장) 평가	BERTScore	BERT 임베딩을 활용하여 의미적 유사성을 평가한다.
	SacreBLEU	BLEU의 변형으로, 의미적 유사성을 정확하게 평가한다.
	MoverScore	단어 간의 이동 거리를 기반으로 의미적 유사성을 평가한다.
화용(문장) 평가	없음	발화 목적이나 의도, 대화 상황 등을 평가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형태, 통사, 의미 평가에 집중한 대표적인 자동평가지표를 선정하여 AI 번역과 인간 번역 결과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형태 평가에는 METEOR를, 통사 평가에는 TER를, 의미 평가에는 BERTScore를 선정하고자 한다. 각 지표의 가중치를 설정할 때, 형태와 통사에 25%씩, 의미에 50%의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이는 통번역에서 성공적인 의미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각 선정 지표,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가중치 부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선정된 평가지표, 각 지표 선정의 이유 및 가중치 부여 설명

평가지표	설명	가중치
METEOR	형태 평가에 효과적이며, BLEU에 비해 번역 결과와 참조 번역 간의 유사성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어휘적 정확성, 의미적 매칭, 어순, 단어 형태 변화를 고려한 평가도 가능하다.	25%
TER	통사 평가에 효과적이며 번역된 문장과 참조 번역 간의 편집 거리를 측정하여 통사적 유창성과 어순 정렬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으며, 품질이 높고 수정 필요성이 적은 번역도 잘 평가할 수 있다.	25%
BERTScore	의미 평가에 효과적이며 사전 학습된 BERT 모델을 활용하여 번역 결과와 참조 번역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문맥과 의미 측면 역시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50%

3.2. 평가 결과의 도출 과정

우선, 평가 결과를 잘 도출하기 위해 평가 기준이 된 참조(reference)와 평가를 받게 된 후보(candidate)를 설정해야 한다. 참조와 후보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 (ㄱ) 참조: 5일 중국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우버컵 세계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결선에서 3:0으로 인도네시아팀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L) 후보: 중국 여자 배드민턴 팀이 5일 유버컵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여자 팀을 3-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참조와 후보를 설정한 뒤, <그림 1>에서 제시된 코드를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실행한다.

```
Python 3.10.11 (tags/v3.10.11:7d4ccba, Apr 5 2023, 00:38:17) [MSC v.1929 64 bit (AMD64)] on win32
Type "help", "copyright", "credits" or "license()" for more information.
>>>
>>> from nltk.translate.meteor_score import meteor_score
>>> from nltk.metrics import edit_distance
>>> from bert_score import score
>>>
>>> reference = "5일 중국 배드민턴 여자 대표팀이 유버컵 세계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결선에서 3:0으로 인도네시아팀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 candidate = "중국 여자 배드민턴 팀이 5일 유버컵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여자 팀을 3-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
>>> # METEOR Score
>>> tokenized_reference = reference.split()
>>> tokenized_candidate = candidate.split()
>>>
>>> meteor = meteor_score([tokenized_reference], tokenized_candidate)
>>> print(f"METEOR Score: {meteor:.4f}")
METEOR Score: 0.4370
>>>
>>> # TER Score
>>> ter = edit_distance(tokenized_reference, tokenized_candidate) / max(len(tokenized_reference), len(tokenized_candidate))
>>> print(f"TER Score: {ter:.4f}")
TER Score: 0.7143
>>> ter = 1 - ter
>>>
>>> # BERTScore
>>> candidates = [candidate]
>>> references = [reference]
>>>
>>> P, R, F1 = score(candidates, references, lang='ko', verbose=True)
calculating scores...
computing bert embedding | 1/1 [00:01:00:00, 1.52s/it]
computing greedy matching | 1/1 [00:00:00:00, 52.621t/s]
done in 1.63 seconds, 0.61 sentences/sec
>>> bert_score = F1[0].item()
>>> print(f"BERTScore - F1: {bert_score:.4f}")
BERTScore - F1: 0.8860
>>>
>>> # Weighted Index Calculation
>>> weighted_index = 0.25 * meteor + 0.25 * ter + 0.5 * bert_score
>>> print(f"Combined Index: {weighted_index:.4f}")
Combined Index: 0.6237
```

<그림 1>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실행한 코드

<그림 1>은 주어진 참조 번역과 후보 번역을 사용하여 세 가지 다른 번역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이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번역 품질 지수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먼저, METEOR 점수를 산출하였다. METEOR 점수는 후보 번역과 참조 번역 간의 정확성 및 단어 순서의 일치도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후보와 참조 문장은 토큰화되고, METEOR 함수를 사용하여 후보와 참조 토큰 시퀀스 간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다음은 TER 점수의 산출 단계였다. TER 점수는 후보 번역과 참조 번역 간의 편집 거리를 측정하여 번역 품질을 평가한다. Edit_distance 함수를 사용하여 후보 및 참조 토큰 시퀀스 간의 편집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최대 토큰 수로 나누어 정규화하였다.

마지막으로, BERTScore를 산출하였다. BERTScore는 BERT 모델의 임베딩을 사용하여 후보 번역과 참조 번역 간의 유사성을 측정한다. Score 함수를 사용하여 후보와 참조 문장 간의 BERTScore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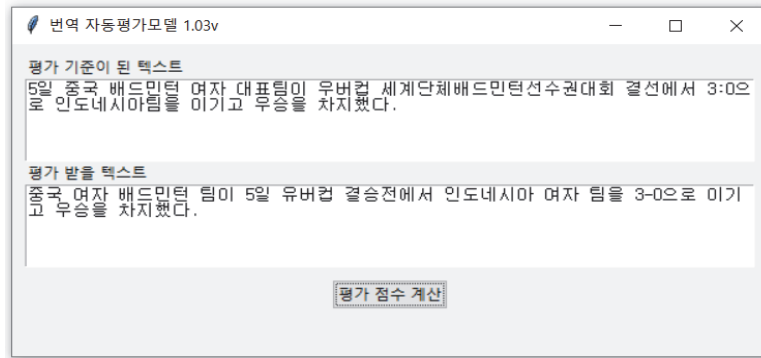
이처럼 세 가지 평가지표의 결과를 고려하여 각각의 품질을 반영하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번역 품질 지수를 계산한다. 여기서는 METEOR와 TER에 0.25의 가중치를 할당하고, BERTScore에는 0.5의 가중치를 할당하여 가중 평균을 구합니다. 이를 통해 번역의 종합적인 품질을 평가하고, 본절에서 제시된 후보 사례의 종합평가점수(Combined Index)는 0.6237이며 평가모델을 통해서 3가지의 평가를 복합적으로 한 번에 지수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7) 0.6237이라는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이면 후보 번역이 62,37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4. 자동평가모델의 응용

4.1. 번역 평가에서의 응용 사례


4.1.1. 번역 자동평가모델 프로그램 개발



〈그림 2〉 번역 자동평가모델 프로그램 1.03v


번역 자동평가모델의 구축 원리를 활용하여, 이 모델이 어떻게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지에 진행하였다. 〈그림 2〉에서 제시된 구축 원리를 기반으로, 번역 자동평가모델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한 사례를 보여준다.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번역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점수 계산 메커니즘을 통해 번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4.1.2. 번역 평가에서의 자동평가 도입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

번역 평가표



평가 대상자: 리번깁민 수험 번호: 0123456789 국적: 홍콩 시험 일자: 2024년 5월 8일 번역 방향: 중→한 번역	
--	--

1. 자동평가모델 결과

항목	평가 내용	점수(가중치)
어휘 - METEOR	후보와 참조 토큰 시퀀스 간 정확성 및 단어 순서의 일치도 평가	0.4370(25%)
문장 - TER	후보 및 참조 토큰 시퀀스 간의 편집 거리 측정 및 최대 토큰 수로 나누어 정규화	0.2857(25%)
의미 - BERTScore	BERT 모델의 임베딩을 사용하여 후보와 참조 문장 간의 유사성 측정	0.8860(50%)
종합평가 (Combined Index)	METEOR, TER, BERTScore 결과에 가중치 부여하여 종합적인 번역 품질 지수 계산	0.623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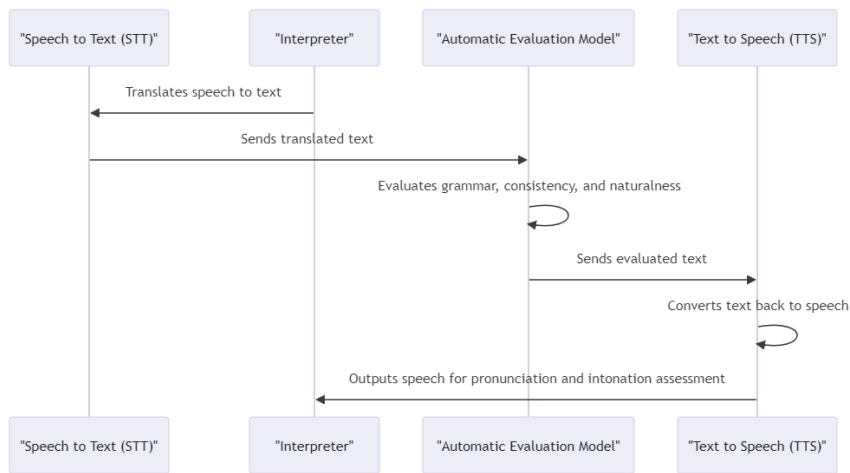
2. 인간 평가 결과

항목	평가 내용	점수
전문가 평가	전문가의 추가 평가	
표현의 적절성	번역문에서의 표현 적절성 평가	
컨텍스트의 정확성	번역문이 주어진 맥락에 얼마나 잘 맞는지 평가	
문화적 적합성	번역문이 대상 문화와 얼마나 잘 어우러지는지 평가	

〈그림 3〉 자동평가모델을 도입한 번역평가표

〈그림 3〉을 살펴보면 실제 번역평가표의 자동평가 부분은 번역 학습자가 번역한 내용의 정확성, 문법 정확성, 일관성,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자동평가모델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는 번역 결과물이 원문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히 전달하는지를 평가하고, 번역된 문장이 문법적 오류를 가졌는지를 자동으로 검출해낸다. 또한, 전체 문서에 걸쳐 용어와 스타일의 일관성을 평가하며, 번역된 텍스트가 대상 언어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를 평가하는 기능은 자동평가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자동평가 점수들은 번역 품질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여 번역의 기본 품질을 확보한다. 앞으로는 이 결과를 전문가의 인간 평가와 결합하여 더욱 정밀하고 깊이 있는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자동평가와 인간 평가의 통합은 번역 평가 방식을 혁신하고, 보다 정교한 번역 품질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4.2. 통역 평가에서의 응용 사례



〈그림 4〉 통역 평가에서의 자동평가모델 응용 원리

〈그림 4〉가 보여주었듯이, 통역 평가에서의 응용 사례로 자동평가모델에는 STT(Speech to Text)와 TTS(Text to Speech) 기술을 도입하면 통역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공할 수도 있다. STT 기술을 통해 통역된 말이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자동 평가모델이 문법 정확성, 용어의 일관성, 문장의 자연스러움 등을 평가한다. 앞으로 TTS 기술을 사용하여 이 텍스트를 다시 음성으로 변환함으로써, 통역의 발음과 억양이 자연스러운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통역 평가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교육과 실제 통역 상황에서 피드백 제공에 크게 기여한다.

5. 결론

■ 참고문헌 ■

- 노대원 · 홍미선(2023), ChatGPT 글쓰기 표절 대응과 교육적 활용 전략. *국어교육연구*, 82, 71-102쪽. Noh, D. & Hong, M. (2023).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Plagiarism in ChatGPT Writing and Its Educational Use. *Research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82, 71-102.
- 백설(2022), 중한 기계번역의 품질평가 BLEU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Baek, S. (2022). A Study on BLEU for Quality Evaluation of Chinese-Korean Machine Transl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원몽(2023), 중한 MT 번역에서의 프롬프트 유효성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Won, M. (2023). Analysis of Prompt Effectiveness in Chinese-Korean MT Transl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윤옥한(2023), Chat GPT 등장과 교양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5), 86-96쪽. Yoon, O. (2023). Exploring the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with the Emergence of Chat GP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3(5), 86-96.
- 이선화(2023), 챗GPT를 적용한 번역수업 실천 사례 연구: 학부생 번역 과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4(3), 351-379쪽. Lee, S. (2023). A Practical Study on Translation Lessons Applying ChatGPT: Focused on Undergraduate Translation Assignments. *Translation Studies*, 24(3), 351-379.
- 임형재 · 허은혜 · 리벤캘빈(2023), 한국어 통번역사를 위한 AI 번역의 이해. *소통*. Lim, H., Heo, E. & Bun Calvin, L. (2023). Understanding AI Translation for Korean Interpreters. *Communication*.
- 임형재, 리벤 캘빈(2024), 한국어 교육에서 AI 번역의 활용 방안 연구: 프롬프트 설계의 유효성과 PE 활동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2), 351-372쪽. Lim, H. & Bun Calvin, L. (2024). A Study on the Use of AI Transl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ing on the Effectiveness of Prompt Design and PE Activities. *Journal of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3(2), 351-372.
- 정혜연(2018), 번역의 자동평가: 기계번역 평가를 인간번역 평가에 적용해보기. *통번역학연구*, 22(4), 265-287쪽. Jung, H. (2018). Automatic Evaluation of Translation: Applying Machine Translation Evaluation to Human Translation.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tudies*, 22(4), 265-287.
- 최지수(2023), 인간번역 품질평가를 위한 자동평가 모델 BLEU의 수정과 적용.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hoi, J. (2023). Modific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utomatic Evaluation Model BLEU for Human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ljanabi, M., Yaseen, M., Ali, A., & Mohammed, M. (2023), Prompt Engineering: Guiding the Way to Effective Large Language Models. *Iraqi Journal for Computer Science and Mathematics*, 4(4), 151-155.
- Gao, Y., Wang, R., & Hou, F. (2023). How to Design Translation Prompts for ChatGPT: An Empirical Study. *ArXiv*, abs/2304.02182.
- Sadiku, M. N. O., Musa, S. M., & Chukwu, U. C. (2022).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 *iUniverse*.
- Yamada, Masaru (2023). Optimizing Machine Translation through Prompt Engineering: An Investigation into ChatGPT's Customizability. In *Proceedings of Machine Translation Summit XIX*, Vol. 2, 195-204, Macau SAR, China. Asia-Pacific Association for Machine Translation.

문학번역의 주변텍스트 동시적 연구

- 중국소설 『活着』의 한역본을 중심으로 -

린샤샤(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번역학은 1970년대 이후 신생 학문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주로 번역의 결과와 과정에 대한 연구로 나뉘어져 있다. 최근에는 텍스트 외적인 요소, 특히 곁텍스트(paratex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곁텍스트는 프랑스의 문학이론가 주네트에 의해 도입된 개념으로, 본문을 제외한 책의 다른 구성요소들을 말한다. 이는 다시 주변텍스트(peritext)와 바깥텍스트(epitext)로 구분됩니다. 주변텍스트는 책 제목, 저자명, 서문 등 책 내에 포함된 요소를, 바깥텍스트는 작가의 인터뷰나 일기 같이 책 외부의 요소를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특히 문학작품의 번역 과정에서 주변텍스트가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작가 위화의 장편소설 『活着』의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의 주변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며, 초역본부터 최근 번역본까지의 변화를 동시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번역본의 주변텍스트 구성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같은 번역자의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판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재번역의 원인 및 동기

박미정(2016:89; Gürçağlar, 2009: 233; Feng, 2014: 70 재인용)은 Susam-Sarajeva(2003:2)가 주장한 재번역에 대한 정의를 더욱 일반적으로 정리해 보면 재번역이란 “과거의 번역된 작품을 같은 언어로 번역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물, 즉 재번역된 텍스트 그 자체” 가리킨다고 밝혔다. 임순정(2010:13)은 문학 번역이라는 특정 번역 장르에서 재번역 현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문학 작품에 재번역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김비에(Gambier 1994:413-417)는 자국화 경향과 원문에 대한 충실도 부족으로 생기는 번역 오류와 생략이 재번역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둘째, 임순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와 표기법 때문에 오래된 번역본이 현대 독자들에게 수용되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재번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셋째, 이상원과 Fawcett는 출판 과정에서 출판사 내부의 여러 구성원들(편집인, 교열 편집자 등)이 번역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이를 파워 게임으로 비유한다. 김수미(2013:5-7)는 대중 매체(영화, 연극)의 영향으로 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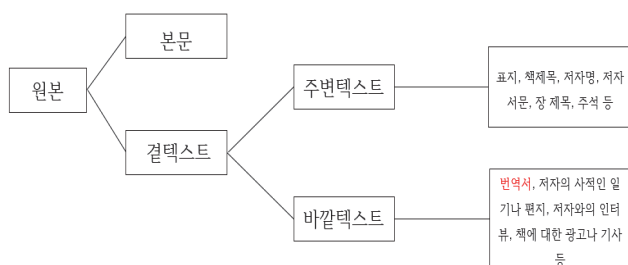
원작의 인기 상승이 번역본 판매와 재번역을 촉진한다고 설명한다.

넷째, 베르만은 번역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어 재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번역이 문화적, 언어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새로운 번역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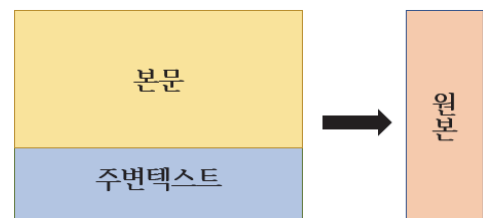
또한 임순정(2010:45)은 재번역을 유발할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정리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번역의 오류나 결함,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식이 된 부분, 3) 번역 시점에서의 도착어 국가의 사회적·문화적 상황, 4) 도착어 국가의 독자층의 수용 및 요구 변화, 5) 출판문화계의 상업적 논리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요인들은 번역된 작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번역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다. 결텍스트도 시기, 문화, 장르, 저자, 작품, 판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Genette 1997:3; 이지민·한류혜 2022:194 재인용). 이러한 재번역 현상은 결텍스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재번역할 작품을 선정하게 되면 번역자가 어떤 번역 방법을 택하는지에 따라 표기법도 다르고 문화적 요소로 인한 이질감을 더 느끼도록 부연 설명이나 주석을 첨가할 수 있다. 출판사에서는 재번역된 작품을 재출판하면 책표지 디자인 변경, 판형, 삽화 등 주변텍스트 요소도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2. 번역본의 주변텍스트의 재분류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들에 따르면, 결텍스트는 주네트(Genette)가 1987년 저서 『Seuils』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으로, 핀란드 학자 코발라(Kovala)가 1996년 영미문학의 핀란드어 번역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를 도입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영래와 박선희(2010)는 결텍스트가 번역본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민서와 김순영(2019)은 결텍스트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한다. 주네트가 원본 본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텍스트는 본문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된다. 본문에 주변에 위치하는 표지, 책제목, 저자명, 저자 서문, 장 제목, 주석 등 요소들은 주변텍스트(peritext)로 정의하고, 반대로 저자의 사적인 일기나 편지, 저자와의 인터뷰, 책에 대한 광고나 기사 등으로 주변텍스트에 비해 동일한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본문 밖에 위치하는 요소들은 바깥텍스트를 말한다. 이지민과 한류혜(2022)는 번역본을 바깥텍스트로 간주하며, 이는 원텍스트의 해설과 관련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결텍스트의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으며, 유한내(2013), 박선희(2015), 이지민·한류혜(2022) 등 여러 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림[1] 주네트에 따른 결텍스트 분류(1987/199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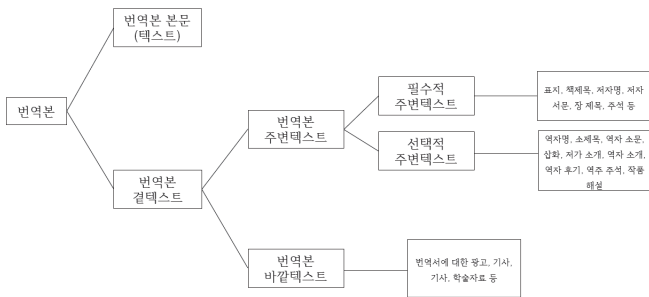


그림[2] 본문과 주변텍스트로 구성된 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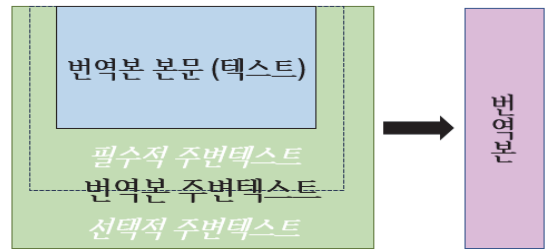
앞서 주네트가 원본의 결텍스트는 원본 본문에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그림[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네트(1987:17)는 결텍스트는 그 어떤 형태를 취하든 자율적이지 못하며, 결텍스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텍스트에 봉사하도록 한다고 규명하였다. 특히 저자명, 책제목을 비롯한 정보가 주변텍스트의 일부로서 책에서 노출하게 되어 본문과 같이 한 원본을 구성한다. 이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2]를 제시할 수 있다.

주네트의 결텍스트 연구는 번역 작품을 원작의 종속물로 간주하였으나, 최근에는 번역 작품을 새로운 작품으로 보는 관점이 대두되고 있다. 바슐라르는 번역학에서 결텍스트를 기능적 관점에서 정의하며, 텍스트의 수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인위적으로 설계된 문턱으로 설명한다. 이는 원작과 번역본의 결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번역본이 원작의 종속물이 아닌 독립적 존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한미선(2008:18-19)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 번역본들은 영어 원본에 원래 있던 원본 결텍스트를 충실하게 담고 있으며, 그 외에 원본에 없는 역자 서문이나 후기, 작가와 작품의 세계, 작가의 연보 등 내용들은 한국어 번역본의 새로 결텍스트로 추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번역본에서 드러나는 결텍스트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국내외 연구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번역본 텍스트의 범위와 번역본 결텍스트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영래·박선희(2010)는 헌사나 감사의 글 등의 요소도 번역자가 번역하기로 선택하면 텍스트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주네트의 결텍스트 개념을 보완했다. 박선희(2015)는 주네트의 결텍스트와 번역본의 결텍스트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발신자적 특성의 차이로 설명하며, 번역문의 주변 텍스트를 번역본에서 본문을 제외한 구성 요소로 구분했다.

앞서 연구자들이 밝힌 번역본의 텍스트 범위 및 번역본의 결텍스트 범위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번역본 결텍스트의 재분류는 다음 그림[3]과 같다.



그림[3] 번역본 결텍스트의 재분류 그림



[4] 번역본 본문과 번역본 주변텍스트로 구성된 번역본

번역본은 번역본 본문과 번역본 결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본 결텍스트는 번역본 주변 텍스트와 번역본 바깥 텍스트로 구성되며, 이 중 번역본 주변 텍스트는 필수적 주변 텍스트와 선택적 주변 텍스트로 분류된다. 필수적 주변텍스트는 원본의 제목, 저자명, 저자 서문, 저자 주석 등 원본의 본문 외에 필수적인 요소들로, 번역 과정을 거쳐도 빠짐없이 번역본에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 선택적 주변텍스트는 역자명, 소재목, 역자 서문, 작품 해설, 역자 주석, 삽화 등으로, 역자나 출판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된다. 번역 바깥텍스트는 번역본에 대한 인터뷰, 기사, 광고, 학술자료 등을 의미한다. 앞서 번역본 결텍스트의 재분류에 의하면 번역본에 번역본 본문과 그를 둘러싸는 번역본 주변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본의 구성은 시각화하면 아래 그림[4]와 같다.

한국에서 번역본 주변 텍스트에 관한 통시적 연구는 김민서·김순영(2019)와 이지민·한류혜(2022)의 연구가 있다. 김민서·김순영(2019)의 연구는 『걸리버 여행기』의 완역본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원본 결텍스트와 번역본 결텍스트가 재구성되어 작품이 해석되는 양상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90년대 이후 출간된 번역본에서는 삽화를 제외한 나머지 원본의 결텍스트 요소들이 충실히 전달되었으며, 2000년도 이후 번역본에서는 삽화의 비중이 높아지고 새롭게 결텍스트도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지민·한류혜(2022)는 원본 결텍스트와 차별되는 번역본 결텍스트를 ‘번역된 결텍스트’와 ‘번역본 결텍스트’로 분류하고, 이들 결텍스트도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로 구분하였다. 두 권의 한역본 『맹무새 죽이기』의 주변텍스트가 원본에 비해 통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근 번역본일수록 원본에 충실성이 강

화되고, 새롭게 추가된 번역본 주변텍스트를 통해 번역자의 가시성이 높아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도서를 분석 대상으로 시대별로 번역본 주변 텍스트의 변화를 검토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후속 주변 텍스트에 관련된 연구를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3. 분석 대상의 주변텍스트 양상

『活着』의 원본은 1992년 격월간 『收获』에 처음 발표되고 작가 위화(余华)가 『活着』의 초판본을 기초하여 영화를 각색에 참여한 이후 『活着』의 내용 추가하여 소설의 편폭이 늘어났다. 현재 우리가 잘 알려진 『活着』은 1993년 11월에 长江文艺出版社에서 출판된 장편소설이다. 위화 작품에 일찍 주목했던 푸름숲이 1997년에 『活着』의 한국어 번역본인 『살아간다는 것』을 출간하고, 그 이후 두 차례를 거쳐 2007년과 2023년에 다시 재출간되었다. 지금 한국에서 확보할 수 있는 『活着』의 한국어 번역본은 총 3가지 판본이 있는데, 이 3가지 판본은 동일한 역자와 출판사로 출간되었지만 이 3가지 번역본이 출판 간격은 약 10-15년 정도 차이가 난다. 물론 이 번역본들은 다른 정전의 번역본에 비해 긴 세월을 겪지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본과 번역본 주변텍스트의 변화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본다. 1997년 출간된 『活着』의 한국어 완역본을 포함하여 3편의 분석 대상 번역본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이러한 주변텍스트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活着』의 원본 주변텍스트를 확인해 본다. 두 번째로는 각 번역본들에 나타난 주변텍스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1] 분석 대상 목록

분석 대상 목록					
	작품	저자/ 옮긴이	출판 연도	출판사	비고
ST	『活着』	위화(余华)	1993.11	长江文艺出版社	
TT1	『살아간다는 것』	백원담	1997.07.15	푸름숲	최초의 완역본
TT2	『인생』	백원담	2007.06.28	푸름숲	1997년 출간된 『살아간다는 것』의 개정판
TT3	『인생』	백원담	2023.09.12	푸름숲	위화 작가 등단 40주년 기념 리커버 특별판

3.1. 원본 『活着』의 주변텍스트

1993년에 출간된 『活着』의 주변 텍스트는 표지(앞표지, 속표지, 뒤표지), 저자명, 도서명, 작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자가 책을 읽기 전에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사전 정보이다. 이러한 주변 텍스트는 독자가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책의 분위기와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3.2. 1997년 초역본 『살아간다는 것』

최은정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988년 공산권 작품 해금 조치 이후 중국 문학 번역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위화의 『活着』가 백원담의 추천으로 한국에서 소개되었으며, 그 초역본은 1997년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번역본은 표지, 저자명, 저자 소개, 저자와 역자의 머리말, 작품 해설 등 다양한 주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자는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과정에서 주석을 추가하고, 작품의 역사적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해설을 포함시켰다. 또한, 소설의 시대적 배경과 주제를 강조한 오정희의 서평도 포함되어 있어, 작품의 수용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3.3. 2007년 개정판 『인생』

2007년 푸른숲 출판사에서 출간된 『인생』의 개정판은 다양한 주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앞표지는 빨간색을 사용하고 제목, 저자명, 역자명, 일러스트레이션, 출판사 정보 등을 포함한다. 책날개에는 저자 위화에 대한 소개, 수상 이력, 워싱턴 포스트의 추천글이 실려 있다. 내부에는 위화가 쓴 세 편의 서문과 한국어판 개정판 서문이 있으며, 서문에서는 출판 10주년 및 한국 출판사와의 관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일러두기 섹션에서는 책의 개정 내용, 외래어 표기 방법, 주석에 대해 설명한다. 역자 주석과 해설은 원본에 없던 내용으로, 역자의 목소리를 도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뒤편에는 역자 백원담과 출판 관계자 정보가 있으며, 뒤표지에는 영화제 수상 내용과 본문 발췌, 추천 글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판은 번역된 텍스트뿐만 아니라 풍부한 주변 텍스트를 통해 독자에게 저자와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3.4. 2023년 리커버 특별판 『인생』

위화의 등단 4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대표작 《인생》과 《허삼관 매혈기》의 개정판이 푸른숲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번역가 백원담이 문장을 세심하게 다듬고, 고급 양장 제본으로 제작되어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개정판은 앞표지에서 저자명, 책 이름, 장르, 역자명, 출판사 정보와 빨간색 바탕에 큰 글씨로 저자의 영문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내용에는 작가 소개, 서문, 일러두기, 본문, 역자소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작가 소개에는 위화의 생애, 작품, 평가, 수상 경력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책에는 번역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역자의 주석과 해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역자는 해설을 통해 중국 현대사와 문학사를 분석하여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책의 뒤표지는 앞표지와 같은 빨간색을 사용하며, 숫자 '40'을 크게 인쇄하여 등단 40주년을 상징하고 있다. 뒤표지에는 서문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홍보 문구로 사용하고 있다.

4. 시대별에 따라 한역본 주변텍스트의 변화 (추후 수정 및 보완)

5. 결론 (추후 수정 및 보완)

중국 현대소설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하나인 위화의 작품 『活着』은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여러 차례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주변 텍스트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독자들의 이해를 크게 돕고 또한 이 책의 인기를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지 디자인, 번역본 제목, 저자 소개, 저자 서문, 역자 주석 등 여러 요소가 변화하였고, 번역본의 완성도가 향상되어 독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독자의 요구와 취향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번역본이 원작의 의미와 가치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순미(2014), 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을 중심으로 본 역자후기의 내용과 기능, 『번역학연구』 15, 33-81.
- 박미정(2016), 하루키즘과 능동적 재번역:〈ノルウェーの森〉 재번역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0, 83-115.
- 박선희(2015), 번역문의 곁텍스트-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 7-33.
- 박윤우·이상빈(2023), 페리텍스트(peritext)의 통시적 변화 고찰-번역서 〈제2의 성〉을 기반으로, 『통번역학연구』 27, 47-69.
- 박희명(2023), 소설 표지디자인의 수사적 표현이 도서 구매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한내(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정영목 역(譯) 〈로드〉의 후텍스트 분석, 『통번역학연구』 17, 101-119.
- 이상원(2005),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민·한문혜(2022), 문학 번역서 곁텍스트 재정의와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주변텍스트 통시적 사례 연구, 『T&I review』 12, 193-210.
- 이혜수(2010), 2000년대 베스트셀러 표지디자인의 시각적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순정(2010), 문학작품의 재번역 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지영래·박선희(2010), 번역본에서의 곁텍스트의 위상, 『번역학 연구』 11, 247-76.
- 최은정(2015), 중국현대소설의 국내 번역 현황 및 독자 수용 양상-최근 10년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8, 103-125.
- 한미선(2013), 풍자소설번역에서의 곁텍스트 기능 및 특징: 〈걸리버 여행기〉와 〈동물농장〉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4(4): 201-23
- Kovala, U(1996), Translations, Paratextual Mediation, and Ideological Closure. Target. 8(1), 119-147
- 梁鑫(2023), 副文本对比研究——以莫言《檀香刑》原作与葛浩文英译本为例, 『Modern Linguistics』 11, 4691.
- Batchelor, K(2018), Translation and paratexts. London: Routledge
- Berman, Antoine(1999), Latraduction etlaettereu l'aubergedu lointain. Paris: Éditionsduseuil
- Fawcett, P(1995), Translation and power play. The Translator, 1(2), 177-192.
- Gambier, Yves(1994), Laretraduction,retouretdetour, in Meta 39(3). 413-417.
- Genette, G(1987), Seuils, Paris: Editon du Seuil.
- Genette, G(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Jane E. Lewin (tr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분석 자료

- 余华(1993), 『活着』, 长江文艺出版社
- 백원담(1997) 역, 『살아간다는 것』, 푸르숲
- 백원담(2007) 역, 『인생』, 푸르숲
- 백원담(2023) 역, 『인생』, 푸르숲

중국어권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 번역 방법 분석

-광고기능적 AIDA 법칙 관점을 중심으로-

황가흠(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서 개봉된 중국어권 영화¹⁾ 포스터의 한국어 번역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광고기능적 관점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중국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 AIDA 법칙을 이용해 포스터 헤드라인에 대한 유용한 번역 방법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한국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영화산업은 많이 회복된 태세를 보이며 중국영화의 매출 점유율도 전년 대비 늘어났다. 영화산업의 회복에 따라 중국영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 포스터 등 영화 광고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영화를 선택함에 있어 영화 포스터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²⁾ 또한 영화 포스터는 인쇄광고의 하위 분류로 관객에게 영화를 소개하는 일종의 홍보 수단이기도 하다. 헤드라인은 인쇄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영화 포스터에서도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객의 관심을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지는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에 달려 있고, 해당 국가 언어인 번역 포스터의 경우는 헤드라인의 번역 방법과 품질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화 포스터의 번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제목에 집중하였으며 카피 번역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하였다. 또한 영화 포스터 번역이 대부분 언어적과 시각적으로 같이 분석하여 번역 기능적으로 분석해 번역 방법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아직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관점에서 영화 포스터 번역 연구를 다룰 필요가 있다.

1.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기록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서 개봉된 중국영화의 번역 포스터와 중국 더우반영화(豆瓣电影)³⁾에서 기록된 원문 포스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020년부터 2023년까

1) 중국어권 영화는 중국대륙, 중국홍콩과 대만의 영화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하는 중국영화로 표시하는 것이다.

2) 백선기(2007),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운”, 커뮤니케이션북스, pp.216~217

3) 더우반영화(豆瓣电影)는 중국 대표적인 미디어 평점 사이트이다. 더우반에 관한 상세한 한국어 설명은

“<https://namu.wiki/w/%EB%8D%94%EC%9A%B0%EB%B0%98>”를 참조.

지 총 175편의 중국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되었다.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기록되었으나 포스터가 없는 영화를 제외하고 원문 포스터와 번역 포스터를 총 136쌍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장에서 이론적 배경과 AIDA법칙을 이용해 헤드라인 번역 방법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3장에서 번역 사례를 ‘대체’, ‘삽입’, ‘삭제’, ‘굴절’ 등 4가지 번역 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또한 2장에서 제시한 번역 방법 모델에 따라 번역 양상을 분석한 결과도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4장 분석 부분에서 헤드라인 번역사례를 원문 헤드라인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이 양상이 나타나는지, 2장에서 제시한 번역 모델에 무엇을 적용하였는지, 광고기능적 관점에서 이는 적합한 번역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에서 개봉된 중국영화 포스터 헤드라인 번역의 현황을 요약하고, 앞에서 분석한 바를 토대로 영화 포스터 헤드라인 번역 방법을 정리하여 살펴본다. 더불어 본 연구의 의미와 한계점도 제시할 것이다.

1.3 선행연구

영화 포스터의 번역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 영화 제목을 시작으로, 카피를 포함한 텍스트의 구성을 거쳐, 이미지와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에 이르기까지 시각적 측면으로 그 연구 범위를 확장해 왔다(김혜영, 2022a, p.6). 다음으로 영화 포스터에 관한 연구의 발전 순서대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김순영(2006)은 스코프스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에서 개봉된 외국영화 및 해외로 수출된 한국영화의 제목 번역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검토하였으며 각각의 번역방식의 장단점을 짚어보았다. 임종우·이상빈(2016)은 번역학에서 논의되어 왔던 규범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번역기법의 관점에서 영화 제목 번역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이 연구의 분석에 적용할 7가지 번역기법(데이터분류기준)을 제시하고 2014년 국내에서 개봉된 영미영화를 연구대상으로 선별해 각 영화의 한국어 제목에 적용된 번역기법을 정량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이주리에(2014)는 일본으로 수출된 멜로 및 드라마 장르의 한국 영화 포스터에 대하여 제목 번역을 직역과 개역으로 나누어 비주얼 차이를 시선, 발화양식, 양태성과 레이아웃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상빈(2015)은 영어권 외화 포스터를 대상으로 하여 이미지 외에도 텍스트를 유형별로 명시화 기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신나안·신진원(2017)은 체계기능 언어학과 크레스와 반리우웬(1996)의 ‘시각문법’을 기반으로 영화포스터의 상호관계적 기능이 언어요소과 시각요소에서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할리데이(Halliday)는 촘스키(Chomsky) 통사구조 중심의 언어학 이론에 반대하며,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을 발전시켰다. ‘체계적’이라는 용어는 언어를 일종의 체계망, 곧 의미를 이루는 연관 선택 항목들로 보는 견해를 반영하며, ‘기능적’이라는 용어는 언어가 일정한 맥락 속에서 하는 역할을 가리키며, 여기서 기능은 곧 ‘의미기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 본래 기능이라는 말은 어떤 언어 표현을 하는 일정한 역할을 의미하였는데,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대기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모든 의미기능을 통합하는 표현으로 채택하였다. 할리데이는 언어 활동에서 의미가 생성되는 ‘대기능’을 관념적(idéationnelle) 대기능, 대인적(interpersonnelle) 대기능, 텍스트적(textuelle) 대기능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별한다. 본 연구에서 대인적 대기능에 주목한다. 대인적 대기능은 텍스트 내 화자와 청자의 관계(tenor)

4) 이관규 외 지음, (2021),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pp. 19.

를 반영하며, 즉 의사소통에서의 참여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다룬다.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 번역 분석에 있어 이 대기능은 특히 중요하다. 이는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이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관객의 관심을 유도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언어 사용자들이 언어를 통해 행하는 상호작용의 핵심을 ‘교환(exchange)’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교환 행위와 교환 대상이라는 두 가지 준거를 더하여 네 가지 기본적인 발화의 기능을 만들어 낸다.⁵⁾ 이는 아래 <표 1>와 같다.

교환에서의 역할	교환 대상	
	재화 및 서비스	정보
제공하기	제의 내가 커피 사줄게/내가 커피 사 줄까?	진술 엄마는 어제 김치찌개를 해주셨다.
요구하기	명령 그만 떠들고 공부 좀 해라	질문 그 바지 어디서 샀어?

<표 1> 발화 기능의 주요 유형(Halliday&Matthiessen, 2022: 202 재구성)

영화 포스터는 영화의 존재를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며, 제목, 개봉일, 주연 배우 등과 같은 정보는 주로 정보전달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헤드라인 등은 미학적으로 표현되어 소비자와 교감하며, 메타언어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보와 헤드라인은 단순히 영화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넘어서 관객의 감정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영화관으로 관객을 유도하는 호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언어를 통해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체계기능언어학의 대인적 대기능이 설명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헤드라인은 커피의 구성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영화 포스터도 인쇄광고의 일종으로 광고의 기능을 띠고 있다. 광고기능적으로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 번역을 봤을 때 광고와같이 헤드라인을 통해 영화관람까지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에서 적용된 AIDA법칙도 영화 포스터에 적용할 수 있다. AIDA 법칙은 주목(Attention), 흥미(Interest), 욕구(Desire), 행동(Action)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이 네 가지 단계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는 데 거치는 단계로써 해당 단계에 맞춰서 글을 작성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고객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AIDA 법칙에 따라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 번역 방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AIDA 법칙을 통한 영화포스터 헤드라인 번역 전략	세부적인 방법
주목도를 높이는 기능 전략	최상급 표현 사용
	수사법 사용
관심을 유발하는 기능 전략	차별화된 직접적인 표현 사용
	호소적 표현 사용
	온정성 표현 사용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 전략	영화 내용 함축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 전략	외적정보 명시화
	생략형 문장 사용

<표 2> AIDA 법칙을 통한 헤드라인 번역 방법 모델

5) 이관규 외 지음, (2021),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pp. 100

3. 헤드라인 번역 양상

영화 포스터 헤드라인의 번역사례에 AIDA 법칙을 이용한 헤드라인은 총 96개, 그중 하나의 헤드라인에 두 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헤드라인도 13개 발견되었고, 이 경우 방법별을 기준으로 통계한 결과 총 109개였다. 이에 헤드라인의 번역 방법은 아직 체계화하지 못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AIDA 법칙을 이용한 헤드라인 번역 방법의 분석

4.1 주목도를 높이는 기능 전략

4.1.1 최상급 표현 사용

포스터의 언어 표현은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의 주의를 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김길훈·김건(2007)에 따르면 최상급의 표현이 관습화된 표현 방식이 가장 선호하는 표현으로서 카피에서 사용되면 영화 내용이 과장되고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으나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관객의 이목을 단시간 내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4.1.2 수사법 사용

김병희(2007)에서 수사법을 광고에서 주목성의 부각효과를 지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조병량 외(2011:288)에 따르면 오늘날 광고환경에서 소비자들은 광고를 무시하거나 혹은 최소한의 주목만 할 뿐인데 수사법의 사용은 메시지 설득을 위하여 잠재 고객들에게 주목을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헤드라인 번역에서의 수사법은 관객의 주목을 이끌기 위해 언어적인 조정 과정을 거친 방법이다.

4.2 관심을 유발하는 기능 전략

4.2.1 차별화된 직접적인 표현 사용

이 유형은 다른 것과는 무엇이 '다르다' 혹은 '유일하다'라는 차별화되고 독특한 전략을 무기 삼아 관객에게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낯선 문장은 재미있거나, 신기하거나,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고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4.2.2 호소적 표현 사용

김병희(2007:334)에 따르면 카피에서 '권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은

목표 관객에게 영화를 보라고 권유할 줄 알아야 한다. 이에 헤드라인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소적인 표현을 통해 목표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여 영화까지 관람하는 행동을 유도한다.

4.2.3 온정성 표현 사용

에이커 등(Aaker, Stayman과 Hagerty, 1986)에 따르면 온정성이란 ‘사랑, 가족, 우정관계를 직접 또는 대리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리적 각성을 수반하는, 긍정적이면서 그리 강하지 않으며 확산적인 정서’이다.⁶⁾ 즉, 온정성 표현은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다. 또한 감성적이고 호소력이 있는 광고 메시지가 효과적이며, 광고매체는 지면이 크고 광고 노출 시 감성적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잡지나 포스터가 어울린다.⁷⁾ 따라서 온정성 표현을 통해 관객의 공감을 일으켜 영화 관람까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4.3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 전략

신나안(2019:244)에서 영화 포스터의 일차적인 목적은 영화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관객이 알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화의 줄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 번역에서 영화 제목으로만 영화가 어떤 장르이고 또한 어떤 내용인지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목표 관객이 영화에 대하여 이해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헤드라인은 영화 제목을 보조하고 영화 내용 함축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쉽고 간단한 말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요구한다.

4.4 행동을 유도하는 기능 전략

4.4.1 외적정보 명시화

세귀노(Séguinot)가 명시화를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번역에 표현하는 것, 원문에서 전제를 통해 이해 가능한 요소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과 원문의 특징요소를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또한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가치와 태도를 중시하되 객관적인 외적 정보를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의미한다(김병희, 2007:119). 따라서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 번역에서 누적 관람수, 박스오피스나 매출 금액 등 외적정보를 명시화함으로써 더욱 신뢰성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가 영화 관람까지 유도할 수 있다.

4.4.2 생략형 문장 사용

고주환(2014)에 따르면 생략형 기사 제목은 기사 내용을 생략하므로 독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독자는 기사를 추측하게 된다. 또한 그 내용을 확인하게끔 유도하며 기사를 읽는 과정에서 생략된 부분을 유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헤드라인도 마찬가지다. 생략형 문장을 사용한 헤드라인은 관객이 생략된 부분에 대한 궁금을 풀기 위해 영화를 관람하는 행동을 유도한다.

6) 김완석 지음, (2000), 광고심리학. 학지사, pp. 295.

7) 김병희 지음, (2007), 광고카피창작론: 기본원리편. 나남출판, pp. 251.

5. 결론

본 연구는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 영화 포스터의 헤드라인 번역을 검토하였고 향후 영화 포스터 번역의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가 미약하나마 광고기능적 관점에서 영화 포스터 번역 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번역 작업에서 번역 방법을 선택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동규(2003), 『카피라이팅론』, 서울: 나남출판
 김병희(2007), 『광고카피창작론 : 기본원리 편』, 파주 : 나남출판
 김병희(2014), 『광고 카피라이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옥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이권호(2000), 『헤드라인 커뮤니케이션』, 서울: 도서출판 북랜드
 조병량 외(2010), 『(카피라이터 출신 교수들이 쓴)광고 카피의 이론과 실제』, 파주: 나남
 Jeremy Munday 지음, 정연일·남원준 역(2006),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한국 외국어대학교 출판부

[학술논문]

- 김길훈·김진 “국내·외 영화마케팅에 있어서 영화 포스터의 활용에 관한 연구 - 개봉시기·국가와 영화카피를 중심으로” *프랑
 스학연구*39 (2007): 269-288.
 김민영 “영화 포스터 텍스트 연구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26 (2009): 79-106.
 김순영 “스코포스의 관점에서 본 영화제목 번역 유형” *통번역교육연구*4.2 (2006): 31-46.
 김혜영 “영화 포스터 제목의 시각적 요소와 번역 고찰” *통번역교육연구*20.2 (2022): 5-26.
 김혜영 “영화 포스터의 카피 번역 고찰” *통번역교육연구*20.3 (2022): 87-115.
 선영화 “광고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본 번역서 표지 변이 양상 연구 - -표현적 텍스트와 정보적 텍스트의 비교를 중심으로” *번
 역학연구*, 18(3)(2017): 119-148.
 신나안 “관객의 몰입을 위한 영화포스터 번역” *번역학연구*19.2 (2018): 175-202.
 신나안 “영화포스터 번역 전략: 권력거리를 중심으로” *언어과학*23.2 (2016): 41-60.
 신나안, and 신진원 “영화포스터 번역에서의 상호관계적 기능 연구” *번역학연구*18.2 (2017): 97-126.
 오미형 “한국영화의 제목번역 고찰” *번역학연구*13.1 (2012): 59-85.
 윤후남 “영화제목의 기능과 번역” *통번역교육연구*9.2 (2011): 133-153.
 이주리에 “한·일 영화 포스터의 제목 및 비주얼 고찰 - 멜로·드라마 장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18.3 (2014): 153-175.
 최려화 “중국영화제목번역에 대한 약간의 고찰” *중국조선어문*2007.5 (2007): 34-35.